16개국 한국전쟁 참전용사 넋 기리다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 맞아 세계평화 기원

정전 70주년 평화기원 수륙재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참석
尹 "수륙재 계승에 더욱 관심"
참전용사 위패 모셔 시련의식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선시대 왕실차원에서 국태민안을 발원하기 위해 설행해온 진관사 국행수륙재가 정전 70주년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을 맞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고혼을 기리는 추모의 법석으로 회향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과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는 10월 21일 진관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 기원을 위한 수륙재 및 기념식' 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종회의장 주경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 오세훈 서울시장, 강병원 · 김병주 국회의원,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를 비롯한 12개국 대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진관사 수륙재보존회의 사방요신으로 재의 시작을 알린 행사는 내빈들의 헌향 · 헌다 · 헌화로 이어졌다.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국행수륙재의 무차평등 가치를 강조했다. 스님은 "진관사에서 올리는 국행수륙재가 7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죽어간 고혼들의 넋을 달래고 해원함으로써 나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시발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행수륙재의 공덕이 하늘을 움직이고 땅과 바다에 두루 전해져 우리 민족은 물론 인류 전체가 화합하고 상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환영사에서 "수륙재는 온 세계의 모든 대상을 차별 없이 청해 공양하는 의례이자 무차평등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된 의례"라면서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사그라들기를 기원하며 '대자비심으로 꽃피우는 생명과 평화의 기도' 로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 세계 참전용사들의 넋을 달래는 국제적인 의미가 담긴 만큼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축사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전병극 문체부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국행수륙재를 통해 우리의 호국불교 정신이 세계시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 역시 국행수륙재의 가치가 더욱 바람직하게 계승되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참전국 대사를 비롯해 많은 외국인들도 함께한 자리. 기념식에선 대사들이 한국전쟁에서 산화한 각국 희생자들의 위패를 직접 이운하며 의미를 더했다. 16개 참전국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70년 전 6.25전쟁은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모았다"며 "모든 참전국과 대한민국에 평화와 안보, 번영을 기원한다. 전사자와 참전자의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주지 법해 스님을 필두로 한 봉송행렬.

이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강병원 · 김병주 국회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수륙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온전히 계승되길 기원했다. 또한 행사에 동참한 대중은 손용준 · 김은빈 진관사 청년대표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뭇 생명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발원했다.

진관사는 이날 전쟁피해자 구호기금 3000만원과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쌀 2000kg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하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종식을 염원했다.

이후 기념식은 인로왕번기와 취타대, 영가를 태울 가마 등으로 구성된 봉송행렬의 낮재로 이어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주지 법해 스님 등이 선두에서 행렬을 이끌고 해탈문을 지나 일주문에서 영가를 맞이하는 시련의식을 올렸다. 집전은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과 어산종장 동환 스님 등이 맡았다.

"구름이 덮친다고 산 넘어지나"

성파 종정예하,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법문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말이 맞고 스스로 잘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을 초래하고 말세가 될까봐 얼마나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청산(靑山)은 원부동(元不動)이요 백운(白雲)은 자거래(自去來)라. 청산은 원래 움직이지 않고 흰 구름은 왔다 갔다 하는 법입니다."

조계종의 신성을 상징하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사진〉가 10월 21일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법문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강조했다. '마음의 정원' 을 표방한 진관사 도량에 맞춰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겸손하고 굳은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한 것.



대종사는 먼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를 준비한 진관사 대중을 격려했다.

성파 대종사는 "기차는 속력을 아무리 많이 내도 철로를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이처럼 진관사는 시대를 앞서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부처님 본분사에 대한 법도를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종사는 이어 "사람들은 길이 막혀 목적지에 늦는다고 하지만 망자들은 차도 없이, 비행기도 타지 않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이 법석에 49일 전부터 모두 시간 맞춰 참여했을 것"이라며 "불보살님의 증명 아래 고혼들을 불러 모아 이고득락을 염원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예방의학, 범죄예방처럼 수륙재가 예방차원에서 지옥을 면하고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강조한 성파 대종사는 산 사람들이 행동을 조심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대종사는 "살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건 그저 백운(白雲)일 뿐"이라며 "백운이 덮친다고 청산이 넘어지진 않는다. 청산은 중심이고, 마음이 곧 중심이다. 마음을 청산처럼 굳게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종사는 또 직접 겪은 6.25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숨이 희생된 사건인 제주4.3, 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 세월호 ·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한 뒤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깊은 못 근처에 가는 것처럼 살라"고 주문했다.

성파 대종사는 "모두가 조심하고 정신 차려서 앞으로는 오히려 이런 수륙재가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도록 노력해보자"고 부연했다.

"부처님법 전하는 데 삶 바치겠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진산식

"전법의 길은 나만의 길도, 여러분만의 길도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로 취임한 호산 스님〈사진〉이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전법의 길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스님은 10월 25일 봉선사에서 봉행된 제17대 교구장 진산식에서 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부대중 앞에 삼배를 올렸다. 봉선사의 가장 큰 어른인 회주 밀운 대종사를 비롯한 교구스님들과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원로대덕 스님들은 호산 스님의 다짐에 박수로 화답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진산식은 상월청년합창단과 상월비보이단의 문화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비보이들의 화려한 댄스와 청년들의 화음에 경내는 엄숙함 대신 활기가 가득 찼다. 청년포교와 문화예술포교에 앞장서온 호산 스님의 원력이 봉선사까지 이어진 결과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비롯
종단 원로대덕 다수 참석 축하
상월청년합창단 공연으로 활기
대학생 전법기금 1억원 희사해



호산 스님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2019년 상월선원 동안거 풍찬노숙 천막결사부터 계속된 상월결사의 가치를 되짚으며 "부처님법 전하는 데 온 삶을 바치겠다"고 짧은 포부를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호산 스님의 신심과 원력으로 비추어볼 때 봉선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밝게 비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중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살피면서 신도님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원융화합의 모범을 보여 원만한 종무행정을 펼쳐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봉선사 회주 밀운 대종사는 2015년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시절 공포한 승가청규를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밀운 대종사는 "아무리 절 불사를 잘해도 청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이라며 "신임주지가 교구 내 승단을 잘 이끌어 청규를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어를 위해 단상에 오른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청규를 잘 지키라' 는 밀운 대종사의 말씀이 곧 상당법문이고, 청년합창단과 비보이의 공연이 대중법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문이 아닌 본사주지로 취임한 호산 스님에게 당부한다고 밝힌 자승 스님은 "조계종은 본사주지 중심제다. 재적승의 입산부터 열반까지 복지를 책임지고 다양한 문중을 화합해 포교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본사주지 역할"이라며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위기는 본말사가 신심과 원력, 공심을 바탕으로 할 때 극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스님은 또 진산식에 참석한 전국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봉선사 교구스님들을 향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여기 앉아계신 스님들의 의지에 달려있고, 조계종은 사부대중이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며 "호산 스님도 본사주지로서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축사를 통해 "호산 스님은 선방에서 정진할 때 맹렬한 수행자였고, 주지로서는 엄청난 지도력을 보인 지도자였다"며 "봉선사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를 잘 맡아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도 호산 스님이 40년간 쌓아온 다양한 경력을 언급하면서 "호산 스님의 진산으로 국화향기보다 진한 향기가 널리 퍼지길 축원드린다"고 축하했다.

호산 스님의 진산식에는 정관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김한정 남양주 국회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호산 스님의 주지 취임을 축하했다. 이외에 김영배 · 김병주 · 이수진 · 황보승희 의원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경일 파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등도 자리했다.

호산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동국대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기금' 1억원을,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자비나눔 쌀' 300포를 기증하며 자비행에도 앞장섰다.

남양주=윤호섭 기자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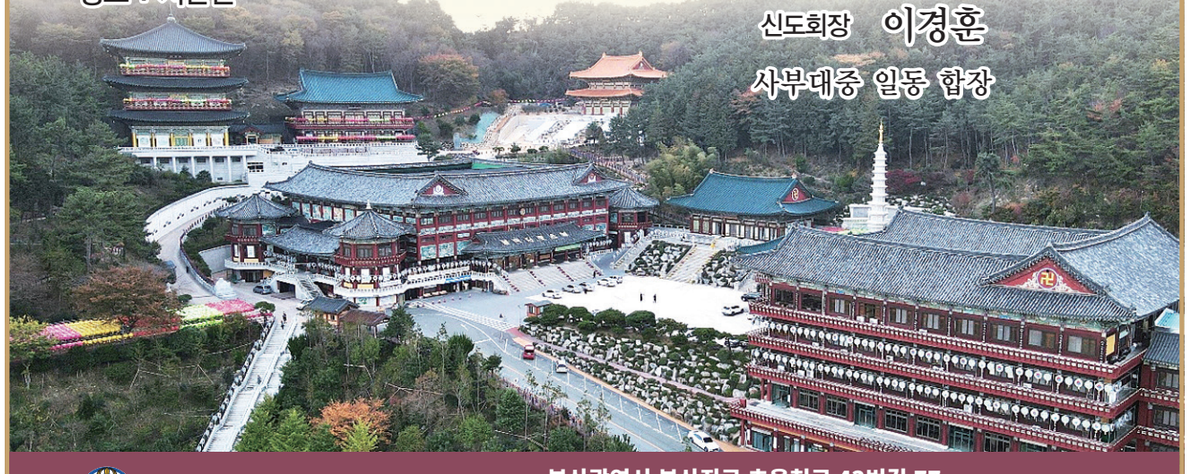
주경야선 관음수행도량 천태종 삼광사
게으른 자여 성불을 바라는가 -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중에서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삼광사 창립 54주년 기념 대법회
- 일시 : 2023년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지관전

삼광사 창립 54주년 기념 음악회
- 일시 : 2023년 10월 31일 오후 6시
- 장소 : 지관전

정 기 법 회 매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금강경전법회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철 야 기 도 매월 일주일간 봉행
법화경독경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주 지 영 제
교 무 덕 중
재 무 무 성
신도회장 이경훈
사부대중 일동 합장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 051)808-7111~5 http://www.samkwangsa.or.kr/